



## 12. 전문가의 직업윤리와 직업관 수립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관점</li> <li>▪ 프로페셔널리스트로서의 업관과 자세 및 태도</li> <li>▪ 올바른 직업윤리관 수립</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프로 직업인으로서의 직업관과 직업윤리를 고찰 해 볼 수 있다.</li> <li>▪ 올바른 직업윤리관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li> </ul>

### <진로지도의 첫 걸음>

전문가의 직업윤리와 취업관 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 또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바른 직업관을 수립하고 프로페셔널리스트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 있는지 프로페셔널리스트 그러니까 전문가의 직업관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일이라는 무엇인가 일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나온 부분에 보면 일이라는 게 원래 뜻 하는 워크 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실행하는 것 행위나 조취나 업무 행해지는 이미 행해진 일 그래서 어원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위 라크네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이제 작용하고 있을까 바라본다고 하면 한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십대 후반에 글로벌 단위 대기업에 다니던 지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재무팀에서 이십년 이상 경력을 해서 벌써 연봉이 이제 억대에 가깝고 뭐 후배직원들도 잘 따르고 회사에서도 잘 나갔었는데요. 근데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경영이 어렵다 보면 명예퇴직들을 많이 받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죠. 아내도 당신이 그 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천천히 일자리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한 달, 두 달 이제 쉬면서 여유롭게 나도 오랜만에 한번 쉬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자녀들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그렇죠.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들 여행도가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좋았죠? 행복한 시간이었던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세 달이 지났는데 어려운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실직기간이 길어져서 6개월 정도가 되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피하기 시작하고 일 년정도가 되니까 아주 싫어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이 남자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지 일을 잃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인생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일은 이렇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범위가 정말 광범위해서 그 영역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에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일에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저도 이제 좋은 대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환경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작은 중소기업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에서 배웠다는 이런 글을 썼더니 사람들이 그 중에 악플을 또 많이 붙더라고요. 중소기업 대한민국에 뭐 엑스엑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 봤자 배우는 것 얻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꼰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저 처음 들어 본 욕이었는데요 노력충이구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마 노력만 하는 사람을 벌레라고 해서 노력충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만 현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관점이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이라는 부정적 관점은 상당히 기원이 오래가는데요. 시시포스의 신화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신에게 이제 형벌을 받아서 오디세우스가 시시포스를 만나는데 돌덩이를 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돌덩이를 주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반복하는 형벌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일이라는 것이 대체로 소모적이고 지루한 거고 자유를 상실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정말 무의미하고 헛된 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베르카뮈 같은 작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이 쓸모없고 헛된 노동보다 더 무시무시한 형벌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인간은 사유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철학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힘을 쓰고 노동을 하는 일을 폄하하는 그리고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과 사촌간이다 라고 이렇게 잠언에 나옵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자신을 분수를 자족하는 생활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교지도자들이 전부 사회 지도자들이었는데 평민들 보통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확정을 그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현세에서 하느님께 부를 되돌리는 것 이런 것 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근면 검소 청렴 이런 것들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것 들이 이제 좀 종교적인 핏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서구제국을 건립하는 정신적인 지주 청교도 혁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 있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성배네리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에게 일에 대한 헌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탁월함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과 또는 르프라고 하는데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일에 어떤 종류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즉 저는 사실 이 관점을 굉장히 이제 동조하는 편중에 하난데요. 이게 이 좋은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바닥을 쓸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연료를 닦거나 아주 미천한 일이라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은 원래가 덧없는 것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이 괴로운 것은 대부분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쾌락을 갈망하고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을 겪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과 동정과 정신적인 수양을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의 정신적인 수양으로 바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은 개인적인 일과 사회적인 일을 흑백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아니라 두 가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만약 학생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학교 생활이나 어떻게 좀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만들어볼 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왕자 보셨죠. 어린왕자가 지구에서 수많은 장미를 보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비 옥백십오호 흑성 맞죠. 그렇죠. 그 흑성에 있던 장미는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구에 이렇게 똑같이 예쁜 장미들이 많다고 하면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하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여우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니가 바람을 막아주고 그렇죠. 물을 주고 정성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인 장미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나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의미를 스스로 부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로지도의 이해>

직업관이란 무엇일까요? 직업관이란 한 개인이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가치 등에 대한 개인의 견해나 입장이나 관념을 의미합니다. 이런 직업관은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종사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하므로 향후 그 개인의 근무태도나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가치관 경매 게임을 통해서 직업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시 고려해야 할 항목은 10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취, 영향력 발휘입니다. 이 가치는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맛보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성취의 가치추구방법은 평소에 스스로 어려운 과제를 설정하고 도전하기 그리고 특정 집단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경험해보기가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대학교수, 연구원, 프로운동선수, 연구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 헌신, 책임감입니다. 이 가치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며, 자신이 맡은 임무에 책임을 다하려는 가치입니다. 봉사, 헌신, 책임감의 가치추구방법은 봉사활동 해보기, 집안일도 성실하게 해보기가 있으며, 위인전 많이 읽기와 종교와 믿음 가지기도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판사, 소방관, 성직자, 경찰관,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성, 개별 활동입니다. 이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며,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기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혼자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성취의 가치추구방법은 무리로부터 떨어져보기와 정해진 과제를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 경험해보기가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자동차 영업원, 레크리에이션 진행자, 광고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정성입니다. 이 가치는 해고나 조기퇴직의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중시하는 가치이며, 주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으며 신체활동을 적게 요구하는 업무나 직업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성취의 가치추구방법은 꾸준히 한 분야 밀고 나아가기 그리고 학업성취도 높이기와 컴퓨터 활용능력 높이기가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사무원, 공무원, 공기업, 연주가, 미용사, 교사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 변화지향입니다. 이 일이 반복적이거나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하고 새

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성취의 가치추구방법은 남다른 경험해보기, 홀로 여행하기 그리고 다양한 분야 사람 만나기가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연구원, 컨설턴트, 소프트웨어개발자, 광고 및 홍보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유와 즐거움입니다. 이 가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마음과 몸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업무나 직업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성취의 가치추구방법은 스포츠 활동 즐기기과 재미 있는 단체 활동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가짐 가지기와 밝은 표정과 이미지 메이킹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 교사, 대학교수, 스포츠관련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6가지 이외에 지식 추구, 애국 및 도덕과 사회 공헌, 금전적 보상,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나머지 직업 가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관에 따라 같은 일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 직업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세와 태도입니다. 둘째는 신뢰와 믿음이고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선입니다. 다음으로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과만 창출하면 CEO들은 직원들의 출퇴근에 개의치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이 바로 성공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함 직장인들의 출퇴근 개념에는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할 각오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면 사소해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예법인 말투, 어조, 눈빛, 인사, 배려 등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예절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예절이 어긋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독설이라는 책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일들만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특별하게 바라보자! 특별한 일을 해야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평범한 일 속에서도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다면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가 빛나는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 직업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성실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예절이라도 잘 지켜야 하고, 또한, 참고 인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빛나는 기준 되도록 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모두 프로 직업인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을 프로 직업인이 되도록 안내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자 올바른 직업관을 수립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한국인들이 참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하루에 이게 제가 조사했던 자료인데요. 하루에 두 시간 이십분을 허비한다. 라고 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안하고 쓰는 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노동생산성 하락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겠죠. 단순히 일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밀드레이크 같은 경우 예는요. 사회는 인간의 어머니이며 인간은 사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게 현대 산업 사회라고 하는데요. 존재항식 의식구조 생활태도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게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 계열화 정부화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의 수준도 굉장히 고도화 되는데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직업관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세 길드 조직처럼 좀 어떤 원자되고 고립된 어떤 개인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일이 사회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그래서 이기주의가 아닌 오히려 이타주의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직업윤리관으로써 첫 번째가 천직으로 어떤 일을 하던 인식을 하고 그 일과 사회가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느끼고 일에 대한 기술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결연한 자세로 하는 것 기준을 확립하는 것 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을 하는 것 직업에 헌신하는 자세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상적인 목표 윤리적인 목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에 대한 인간화라는 작업 그래서 이런 것 중요하겠죠. 일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을 무시하고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어떤 능률과 생산성을 경감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이 지나치게 통제와 억압과 능률만을 바라 본 다라면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워지고 쓸모없는 부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해보자는 일의 인간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어떤 분이 있으세요. 저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봤던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떠오릅니다. 페이디아스가 이제 조각비용을 냈더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 뒷면에 있는 조각을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왜 뒷면까지 가격을 받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 하니깐 페이디아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당신은 틀렸어 하늘의 신들이 볼 수 있지 라고 대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게 피터드러커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린다는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왜 일하는가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 하루 하루를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자아를 확립하고 인격적인 완성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완성해나간다. 저는 또 봤던 티비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신비한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조르즈드 발이라는 이분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여자 친구를 따라서 프랑스인데 미국에 왔는데 버림받고 거리에 부랑자로 있다가 재단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을 나중에 이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소개를 받아서 미국의 대통령 재단사로만 52년 동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규환 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김규환 명장이 제가 강연도 듣고 책을 보면서도 깊은 어떤 걸 느꼈었는데요. 그 가난하고 그렇죠 부모도 없고 어린 시절에서부터 굶주림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삶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을 가지고 과연 나는 그토록 절박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반성이 들었었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다니었던 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 질 때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답니다. 신을 위해서 신이여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회사의 제품까지도 사도록 할 정도로 그 일에 대한 열정 그 가치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이 나의 삶을 성장시켜줬기 때문에 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만 삼천건의 기업 제안을 하게 되었고 실용신안도 특허를 받

기도 하고 품질명장으로 까지 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올바른 직업적인 윤리를 가지고 일을 한다 라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